

1930년3월20일4면1단

## 懷疑主義批判(四)

-思想和 生活의 方法論-

裴相河

그리고 唯物論과 唯心論도 또한 思想인 緣故로 그 唯物論이 생기기 前에 그 唯物論을 研究하기 前에 그 見解 미리 생기지 안흐면 아니 될 것. 研究하지 안흐면 안이 될 것. 『方法論』 中에도 本論인 懷疑主義批判이란 方法論이니 이 方法論이 自己보담 後에 생겼스며 自己보담 後에 研究하여질 唯物論, 唯心論에 立脚한다함은 矛盾인 尙답이다. 다시 말하면 本 方法論은 (칸트의 偉大한 述語를 諧謔的으로 利用한다면) 唯物論, 唯心論에 對한 □□이다. 그러나 本論은 칸트의 論文의 大部分처럼 純正한 學術論文에만 긋치기보담 換言하면 本 方法論이 思想의 方法論이 되기보담 오히려 더욱 더 生活의 方法論 되기를 期待한다. 筆者는 只今 思想에 굶주린 것보담 于先 그 먼저 生活에 굶주린 尙답이다. 思想에 굶주린 사람보담 于先 그 먼저 生活에 굶주린 사람이 만든 尙답이다. 思想에 굶주린 것보담 于先 그 먼저 生活에 굶주린 것이 더욱 根原的인 尙답이다. 그럼으로 本論이 思想의 方法論 될려면은 生活에 對한 變革的 思想의 方法論이면 滿足할 畧이다.

X

便宜 上 本論의 結論을 미리 簡單하게 約束하여 둔다.

『모-든 權威를 疑心하자 徹底히 긋세게 冷靜하게 客觀的으로』

第一章. 懷疑主義의 意義 及 發生原因

本論의 主眼 點은 緒論에서 말한 바와 가티 懷疑主義의 方法論的 價値批判에 있다. 이것이 이 畧 (朝鮮에서만의 이 畧라면 더욱 適確하다)에 생각지 안흐면 아니 될 가장 適切한 問題라고 筆者에겐 생각되는 尙답이며 또한 尙 材料로 筆者의 思想이 몹시도 動搖하고 잇는 懷疑期를 밝고 잇기 畧문이다. 그럼으로 懷疑主義의 方法論的 價値批判을 眞實히 體得하기 爲하여 그 見解 懷疑主義의 意義 及 發生原因 다음 章의 懷疑主義의 種類 及 史的 考察로써 準備的 論述로 삼으려한다.

懷疑主義의 意義는 그의 發生原因과 가장 密接한 關係를 맺고있다. 그럼으

로 意義와 發生原因을 아울러 論述코저하는 바이다.

思想의 動搖 그것만으로는 輕率히 懷疑主義라 할 수는 업다. 그러치만은 懷疑主義의 根本的 動機는 思想의 조고만 動搖에서 비롯한다. 우리가 어셔한 權威를 對할 새에 먼침 그 權威는 可否의 判斷을 超越한 驚異的 感情을 우리에게 強要한다. 올타 그르다는 批判的 態度를 取하기 前에 먼침 우리는 말하자면 沒我的으로 비록 一時的이나마 그 權威를 讚歎하고 마는 것이다. 그러나 머지 안이해서 우리의 驚異的 讚歎이 썩어질새 우리의 思想에는 波紋이 생기고 動搖가 생기고 不安이 생겨난다. 絶對的이든 讚歎은 權威의 表面이요, 여긔서 생겨나는 波紋과 動搖와 不安은 未來에 그 權威를 崩壞시키고 말 權威의 裡面이다. 그러치만은 이 波紋, 이 動搖, 이 不安만으로는 그 權威를 破壞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弱하다 할 수 맞게 업다. 그것은 너무나 漠然한 波紋이며 動搖이며 不安인 까닭이다. 波紋과 動搖와 不安의 對象 點을 把握치 못한 不安이며 動搖며 波紋인 까닭이다. 權威의 어느 것이 原因됨으로써 波紋이 일지 안할 수 업섯스며 動搖가 생기지 안할 수 업섯스며 不安이 생기지 안할 수 업섯나?의 根本焦點을 體得치 못한 까닭이다. 그럼으로 이곳에서 卽 漠然한 動搖와 不安에서 한 거름 더 나아가 哲人의 心的 態度로하여금 動搖와 不安을 생기게 만든 權威의 原因的 要素가 무엇이든가를 眞實히 把握하고 말 새에 비로소 哲人은 그 權威에게 徹底한 懷疑를 하고 잇슴이라 할 수 잇는 것이다.